

# 인류의 첫 번째 죄: 우리가 미끄러진 지점 (창 3:1-13)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인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본문 읽기** 창세기 3:1-13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왜 망가졌는지,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 1. 우리가 미끄러진 지점(1): 유혹에 대한 잘못된 대응

창세기 3장은 유혹자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1절). 여기서 “간교하다(아름)”는 잠언에서 ‘총명하다,’ ‘슬기롭다’는 의미입니다. 뱀이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났던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간교한 유혹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시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금지한 한 가지가 전부인 듯 미혹하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듯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이 뱀의 정체는 “온 천하를 피는 자(계 12:9)” 마귀/사탄입니다. 사탄은 이후 성경에 계속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뱀의 악의적인 유도 질문에 여자가 알려줍니다(2-3절). 1) 하나님은 선악과만 금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 답합니다. 2) 거기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3)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지 모른다면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킵니다. 간교한 뱀은 그 틈을 파고들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4-5절).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처럼 될까 봐 질투한다고 고발합니다. 여자가 이 유혹에 걸려들어서, 온 인류가 나락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인간이 유혹에 넘어간 지점, 죄의 본질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유혹자의 의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벧전 5:8-9).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알아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שמע)’는 것은 내면화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과 입술에 새겨진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날선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새겨 들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 주심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 2. 인류가 미끄러진 지점(2): 내면의 정욕과 거짓 환상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여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감각적 욕구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같이 있던 남자에게도 먹게 합니다. 남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유혹이 실재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욕망을 부추기고,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처럼 환상을 심은 겁니다. 인류가 미끄러진 지점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거짓 환상을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여자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지만, 1)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3)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여자 핑계를 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속였다며 역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지점은 우리 내면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입니다(약 1:14-16).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를 때입니다(요일 2:16). 모든 죄의 근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부추기는 환상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아가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 환상과 내면의 정욕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지만, 유혹에 취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주적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나눔 포인트

### 1. 최초의 유혹자 '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1절) 그가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합니까?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 2. 여자는 뱀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합니까?(2-3절) 뱀이 어떻게 그 틀을 파고들니까?(4-5절)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3. 뱀의 거짓말에 여자의 관점이 어떻게 바뀐다? 결국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6절)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4.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7-12절)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지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도" / 주기도문